

임시이사회 회의록

θ 개최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17:00-17:40

θ 개최장소 : 여의도 쉐닝턴호텔 15층 회의실

θ 총이사수 : 6명

θ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한정국 이사, 원치윤 이사, 정재철 이사
이상 5명

θ 기타참석자 : 재단 정영일 국장, 이랜드클리닉 강준호 원장, 이천화 감사

θ 회의내용

1. 성원보고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총 6명 중 이사 5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성원이 되어 2018년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2018년도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 정영일 국장 : 2018년 3월 22일 18:00~19:00에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는 이사 총 5인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랜드재단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가산사옥이 산업단지로 분류되어 공익법인 입주가 불가하여 종전 목동 사무실로 유지로 변경되었음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4. 성과보고

▶ 이경준 이사장 : 정영일 국장이 재단 2018년 1분기 주요성과보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영일 국장 :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1분기 이랜드재단 성과 및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 ① 인큐베이팅(위기가정지원사업)

용]

② 사업부연계 공익캠페인

▶ 이경준 이사장 : 이어서 이랜드클리닉 강준호 원장이 클리닉 2018년 주요성과보고하시길 바랍니다.

▶ 강준호 원장 :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랜드클리닉 주요 성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

용]

① 2018년 누적 재무성과

② 클리닉 검진 및 봉사현황

▶ 이경준 이사장 : 이랜드재단 주요성과보고에 대해 이사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이천화 감사 : 이랜드재단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내용이 장학사업과 청소년 사업이기에 인큐베이팅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기부금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랜드재단 정관을 변경하던지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담당하던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 부분은 며칠 전 이랜드복지재단의 서울시 지도점검에서도 함께 언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속히 이천화 감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 안건 심의·의결

<제 1호 의안> 이랜드클리닉 내시경 장비교체

▶ 이경준 이사장 : 이랜드클리닉 강준호 원장이 장비교체 관련하여 보고하십시오.

▶ 강준호 원장 : 현재 클리닉에 내시경 장비는 총 3대가 있습니다. 이 중 1대 장비가 노후화 되어 성능저하로 검사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곳의 비교 견적을 통해 비용과 성능 등을 고려했을 때 올림푸스 모델이 가장 적합합니다. 비용은 총 1억 2천 5백만원이 발생할 예정으로 클리닉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클리닉 내시경 장비교체에 대한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정재철 이사 : 네. 정확한 건강검진을 위해 장비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한정국 이사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호 의안> 상임이사 임명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다보니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 정관상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안미션 대표로 역임하며 비영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있는 정재철 이사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재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명	상임이사 선임일	이사 선임기간	비고
정재철	2018.05.25	2018.02.23.~2021.2.22	

▶ 이태용 이사 : 동의합니다.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역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재철 이사가 상임이사로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원치윤 이사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그럼 정재철 이사 상임이사 임명에 대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명된 정재철 이사의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 정재철 이사 : 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로써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3호 의안> 임원변동의 건 : 사임이사 및 신규이사 선임

▶ 이경준 이사장 : 제가 오랫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이사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정국 이사도 개인사정으로 함께 사임합니다. 이에 따라 신입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랜드 내에서 평소에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나눔경영에도 적극적인 박성경 부회장과 재단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화여자

대학교 정순돌 교수를 신임 이사로 추천합니다. 신임이사 선임에 동의하십니까.

성명	만료일	선임기간	비고
이경준	2020.04.08	2016.04.09.~2020.04.08	사임일자 2018.05.25.
한정국	2020.04.08	2016.04.09.~2020.04.08	사임일자 2018.05.25.
정순돌	2022.05.24	2018.05.25.~2022.05.24	선임일자 2018.05.25.
박성경	2022.05.24	2018.05.25.~2022.05.24	선임일자 2018.05.25.

▶ 이태웅 이사 : 동의합니다.

▶ 정재철 이사 : 네,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신임이사 선임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태웅 이사 : 이경준 이사장께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단 이사장으로 많은 수고를 해준 덕분에 재단이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중요한 건 3가지 인 것 같습니다. 실력과 성품,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늘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해주시고 귀한 의견주셨던 이사님들께 감사합니다. 함께 사임하시는 한정국 이사도 인사하시지요.

▶ 한정국 이사 : 처음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나눔의 정신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사로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선한일로 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 된 것에 대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만 65세가 되었을 때 포지션 리더십에서 물러났을 때 말없이 떠난 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재단 역시 마찬가지로 인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역은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랜드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겠습니다. 재단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재철 이사 : 오랫동안 재단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두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4호 의안> 신임 이사장 선출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제가 이사장을 사임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재단 사업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단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동안 재단에 지속적으로 큰 후원을 하고 계시는 박성경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정재철 이사 : 네. 동의합니다.

▶ 원치윤 이사 : 네.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신임 이사장 선출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박성경 이사의 앞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 박성경 이사 : 이랜드 나눔의 역사는 이랜드그룹의 시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눔의 크기도 커지고 나눔의 범위도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사의 발전과 함께 나눔도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사장직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신 이경준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랜드그룹과 이랜드재단을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여러 이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회사에 여러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사장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재단에 꾸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통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이랜드의 나눔 경영이 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복지정책과 제도로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간혹 뉴스에 보도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 '우리재단이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랜드 사회공헌의 [진정성], [지속성],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써의 사회에 본이 되는 모

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의 나눔 경영이 재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부와 직원, 고객의 참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재단이 이랜드의 '나눔'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눔경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와 직원, 고객이 함께 이랜드그룹 나눔의 가치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랜드는 곧 나눔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존경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재단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하여서 어렵고 힘든 나라들의 어두운 구석을 찾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께서 많은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5호 의안> 2018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으로 이랜드재단 2018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이랜드재단은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으로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을 받으면 보통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이에 2018년 기부금에 대해 기본재산예외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정순돌 이사 : 이랜드재단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외승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2018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이태웅 이사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태웅 이사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2018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6.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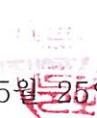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는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7시 40분



2018년 5월 25일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응 (인)



이 사 한 정 국 (인) 

이 사 원 치 윤 (인) 

이 사 정 재 철 (인) 

감 사 이 천 화 (인) 